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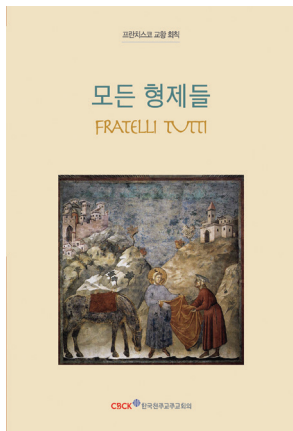


가독

하느님 안에 진정 우리는 모두 형제들인가?

최수련 안토니아
달맞이성당

-
-



출근길 가톨릭센터 로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강의 포스터를 보고 물음표를 던졌다! 매일 ‘헉’하는 사회 뉴스와 사람 사이의 관계성 그래프가 베이비붐세대-386세대-X세대-MZ세대를 걸쳐 끝 모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 나는… 알고 싶었다. 하느님 안에 진정 우리는 모두 형제들인가?

강의 첫날, <2장 길 위의 이방인>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로 든 구절을 읽고, 바로 얼굴이 붉어졌다. **65항.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필요에만 매우 사로잡혀 있기에 고통 받는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번거롭게 여깁니다. 다른 이들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좁은 시선이 불편한 물음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기후위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선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열렸다. 기후 약소국과 선진국 사이의 손실과 피해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였다. 한 가지 예로, 한 페루 농부는 온실가스로 빙하가 빠르게 녹아가자 독일 유력 석탄전력기업을 상대로 홍수 예방비 소송을 제기했다. 페루 농부는 울먹이며 이런 얘길 한다. “선진국 시민들과 달리 우리는 에어컨도 없을 정도로 전력 소비량이 많지 않은데… 기후 변화에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요?” 그리고 한 신문에서 읽은 페루 농부 관련 기사는 나를 더 작아지게 했다. ‘일상의 사치는 선진국 국민이 누리지만 온실가스의 저주는 가난한 농부에게 돌아간다.’ 멀게는 기후 약소국들, 가깝게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까지 이 세상 모든 형제들을 향한 공동선의 부재… 이번 강의는 우리가 삶의 중심을 ‘나’에서 ‘우리’ ‘함께’로 확장시켜 살아야 하는 것을 느끼게 했다. **69항. 날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지 아니면 멀쩡이 지나쳐가는 무심한 행인이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경제적 수준과 직업을 떠나 모두에게는 근심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연대할 때 그 근심의 무게는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올리는 희망을 걸고, 행동할 생각이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을 2023년 시작점에 두고 함께 공유하고 싶다. **235항.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언제나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 이달의 기도 지향 : 각자가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친교와 공동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들인 것이다” (탈출 16:18)

김진호 바오로 신부 해운대성당 보좌 |

지난 한 해는 특히 노동현장 관련 이슈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 후 정부의 노동자들을 향한 관점에 있어 기류 변화가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노동의 근본 개념을 새로 (좁게) 써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조차 들었습니다. 노동자보다 기업을, 사람보다 생산을, 이윤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의 목적인 것처럼 수단과 목적을 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간다면 아마도 통계상 보기 좋은 결과가 유도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중의 지지를 얻고 대중이 공유하는 노동의 개념을 지배하면서 정권을 연장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겠지요.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소모되고 희생될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 ‘안전 운임제’ 시행을 ‘기업의 이익 침해’, ‘국가적 손실’로 대하고 막아선다면 자본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인명에는 큰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해묵은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요. 자본과 생명 중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교회의 교도권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하며, 노동 조합원들이 노동 환경의 개선과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가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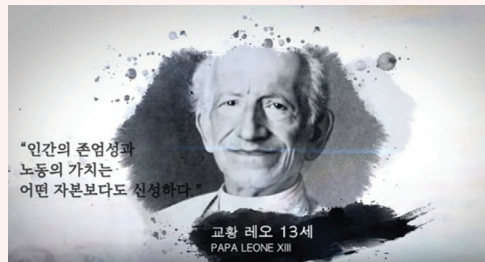
칩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304-307 참조). 이 권리는 공동선 실현을 위해 정당한 것으로서,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 조건과 직접 관련 되지 않는 목적”을 내걸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은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처벌이나 규제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노동하는 인간, 20).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노동 쟁의 후 노동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걸어 막대한 부담을 입히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요. 2009년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다행히도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으나, 지난여름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 대해 사측은 470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어떤 범인(凡人)이 죽기 전에 저 배상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은 그 당연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 또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파업권을 행사했지요. 근래 그들이 요청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

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대신 국가 경제가 입을 피해를 우선 걱정하며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그들을 보호막 없는 현장으로, 그리고 강제로 내몰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현행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사고 위험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치우친 정부의 행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그리고 공동선의 실현에 과연 기여할 수 있을까요. 한 국가 한 국민이라는 생각은 그저 머릿속 구호로만 맴돌고 있는 듯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이 모두 형제자매라는 확신은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고 말씀하십니다(모든 형제들,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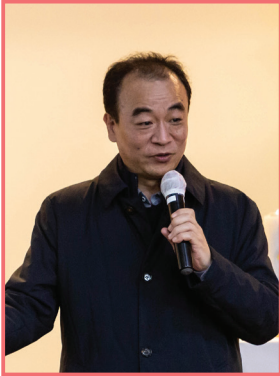
목상 중 이따금씩 상상력을 발휘해 시간여행을 하곤 합니다. 문명이 시작되기 전, 농경이 시작될 즈음의 전의 시절로 제 자신을 여행 보내 봅니다. 사람들은 물과 들을 터로 삼아 지냈겠지요. 물에는 물고기가, 들에는 스스로 자라난 곡식과 과일들이 있었을 테고, 지금은 가축이 된 동물들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이 들에 나가 곡식을 거두어 들였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과 힘을 모아 동물을 잡아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족들

과 나누어 먹었겠지요. 땅에 절로 가득한 양식을 보며, 또 그 양식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세상의 순환 원리가 사랑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은 그 사랑을 거두어 나누는 일, 친교에 봉사하는 일이었을 테고요. 여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얻어 누렸던 만나와 메추리 이야기에는 그런 시절을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국경을 넘나드는 기대자본 “론스타 사태”

이종태 시사인 선임기자



론스타의 ISDS 중재 신청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신청했다. 내용은 외환은행 인수, 매각과정에서 ‘한국 국가의 행위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46억 7950만 달러(현재 환율 6조3천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한국이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BIT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나온 결과는 ‘한국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8월 말 환율 2900억 원)와 이자를 배상하라’였다. 이자를 합치면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란?

사회에서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처럼 기업분쟁 해결 중에 ‘중재’가 있다. 중재를 확대한 것이 국제상사중제로 타 국가 기업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한다. 이것은 국제조약인 뉴욕협약에 따른다. 그다음 단계가 ISDS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다.

외국인 투자자가 피 투자국, 예를 들어 미국인 투자자 론스타가 한국의 외환은행 매매에서 정부의 방해로 손해를 봤다면 한국에 대해서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ISDS는 국가도 손해를 줬다고 판단되면 투자자가 국가를 중재에 부치고 배상을 청구한다. 상수도 시설이나 담배 산업 등 국가가 공공 보건을 위해 취하는 조치도 제소가능하다. 중재나 **국제상사중재는 양측 다 상대방을 제소할 수가 있지만 ISDS에서는 국가는 투자자를 제소할 수가 없다.**

론스타의 경우 손해배상을 제기한 근거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BIT이다. 이른바 양자 간 투자 협정으로 만약 투자자가 타 국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ISDS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2002년 말, 론스타는 당시 외환은행 이강훈 은행장에게 인수 의사를 밝힌다. 문제는 론스타는 사모펀드로 금산분리 원칙상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은행법 예외조항에는 부실금융기관(BIS 8%이하)이라면 산업자본도 인수가 가능하다. **BIS란 자기 자본에 대한 ‘예상’ 손실액**이기 때문에 임의로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한다면 손실액이 커지고 BIS는 하락한다. 외환은행의 BIS가 8% 이하면 론스타도 인수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계기관 회의

2003년 7월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 변양호 재정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1국장 등이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만약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않으면 BIS가 5.42%까지 떨어질 것이다(이강원 외환은행장), 은행법 예외조항 같은 법률문제를 잘 검토하겠다.(김석동 국장)’ 등의 발언이 오갔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BIS 9.14%로 추정했지만 관계기관회의 후 외환은행 BIS가 6.16%로 떨어질 것이라는 팩스가 금감위에 송신되고 외환은행은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된다. 외환은행의 인수 자격을 얻은 론스타는 2003년 1조 3844억 원에 경영권을 매입하고 외환카드의 대주주로 이사회에서 ‘외환카드 감사 검토’를 발표한 후 외환카드를 합병한다.**

2006년부터 외환은행 매각에 나선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와 4조6888억 원에 매각을 체결하고 승인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외환카드에 대한 주가조작의 판결을 내리고 론스타는 사실상 외환은행 매각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외자산은 산업자본 여부와 상관없는 문제’라며 매각을 승인한다. 론스타는 2012년 초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으로 매각하고 철수한다.

론스타의 ISDS 쟁점

론스타는 2010년 11월 처음 계약한 4조6888억 원의 승인이 지체되면서 3조9157억 원에 매각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SDS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체했다고 보지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는 사실이며 ‘사기치고 튀기’ 투자자로 판단해 청구한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한다. 이 판단에 중요한 사안이 있다.

론스타-하나금융 국제상사중재


론스타는 한국에 ISDS를 제기하며 하나금융에 대해서도 론스타를 속여서 매매가격을 깎았다고 국제상사중재를 냈

다. 밝혀진 사실은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론스타 측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승인을 원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너무 많은 수익을 허용했다고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며 매매가를 깎으면 승인할 것’이라고 전한 것이다. 국제상사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금융위원회 당국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가격인하를 요청했고 결국 책임은 한국 금융당국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한국 ISDS에서는 이 판정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돼 한국 금융위가 론스타의 손해를 초래했으므로 한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실 모피아의 원죄라고 생각한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론스타의 해외자산은 산업자본과 상관없다며 매각 후 철수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2012년 한국의 ISDS 대응팀은 외환은행 인수를 지원했던 사람들로 금융위원장 김석동 씨와 2003년 ‘예외 승인함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전달한 현 기재부 장관 추경호씨가 포함됐다.**

ISDS를 이대로 둘 것인가.

4천억 원대 규모의 배상금은 ISDS의 거의 최고액이다. 론스타는 투자를 할 때 ISDS 가능성까지 보고 손해가 나면 제소하는 것으로 사실 100% 승리하는 전략을 세웠다.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단위이다.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와 ISDS라는 무대에 서 개인과 개인으로 부딪히는 상황을 계속 두고 볼 것인가. 심지어 공공 정책 결정까지 좌우하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ISDS는 복잡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함께해야 할 문제이다. 

12월 12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이야기의 주제강의를 고은영 베로니카 정평위원이 요약하였습니다.

? FISHING(낚다) ?

강인구 스테파노 신부 공무원경찰사목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신 사화(루카 5,1-11)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고기를 잡아라.” /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두 문장의 <명사> ‘고기’와 ‘사람’에 포인트를 두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된다는 건, 신분이 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고기를 잡는 직업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이 두 문장에서 <동사> ‘잡아라’와 ‘낚을 것이다.’에 눈을 두면, 또 다른 느낌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큰 의미의 차이가 없지만, 원문은 이렇습니다.

‘잡아라’ - ἄψα 영어로는 hunt!! catch!! 사냥의 의미를 지닙니다. 산 채로 잡으나, 죽여서 잡으나 별 상관이 없지요. 결국 잡힌 놈은 사람의 입에 들어가기 위해 죽을 테니까요.

그런데, **‘낚을 것이다’**의 원문을 보면 이런 단어가 쓰여있었습니다. ζω-γρέω ▶ ζῶον + ἄψα(산 채로 + 잡아라)의 미래형 시제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산 채로 잡을 것이다.”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리기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의미를 담은 적절한 문장이 될까?’ 입으로 ‘산 채로 잡다’를 중얼거리다가 적절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산 채로 + 잡다」 ▶ 「사로 + 잡다」

「사로잡다」

- 1 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산 채로 잡다.
- 2 생각이나 마음을 온통 한곳으로 쏠리게 하다(매료시키다, 반하다, 이끌리다).



‘낚을 것이다.’라는 기존의 번역과는 달리 의미가 더욱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려주는 예시(豫示)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될 사람’이라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사람- 하신 이 말씀은 당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그러다 「사로잡다」의 유의어를 통해 그 답을 찾습니다.

이끌리다 -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사제가 되려 했던가?

반하다 - 나는 예수라는 분의 어떤 모습에 반했던가?

매료시키다 - 나는 예수의 어떤 모습을 닮을 것이며,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사제는 그리스도의 입과 생각과 손과 일치하여야 한다.”(Sacerdotis Christi os, mens manusque concordant)는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은 너무도 부담스럽고, 일부일지라도 내가 반한 예수를 살아내어 만나는 이들을 사로잡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낯설지만, 소중하고 특별한 소중하고 특별한 낯은 여행 가방

(크리스 네일러-발레스터로스 지음, 김현희 옮김, 사파리, 2021.)

김희영 세레나 천사네 청년분과

색이 바랜 여행 가방을 힘겹게 끌고 가는 이의 얼굴이 펴 지쳐 보인다. 정처 할 곳을 찾지 못해 오랜 시간 표류한 듯한 행색이다. 언제부터 길을 떠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기운마저 다한 듯하다. 이런 낯선 이가 우리 마을에 나타난다면 경계심 없는 태도로 그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림책 『소중하고 특별한 낯은 여행 가방』 속 동물들(여우, 토끼, 새)은 낯선 꼬마 동물(원서는 ‘A strange animal’로, 한국어판은 ‘꼬마 동물’로 표기)이 나타나자 그의 낯은 여행 가방으로 시선이 향한다. 네가 어디서 왔고 어떤 여정을 겪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마땅히 머물 곳은 있는지를 묻기보다 가방에 대한 궁금증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함이었을까. 가방 안에는 그가 아끼던 것들과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시절이 들어 있다.

“이 안에는 찻잔이 들어 있어./ (...) 아! 그 안에는 찻잔을 놓을 탁자랑 편히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나무 의자도 있어./ (...) 이 여행 가방 안에는 내가 사는 작은 나무집도 있는 걸. 난 그 나무집 부엌에서 차를 끓여.”

긴 여정 탓인지 꼬마 동물은 금세 잠이 든다. 그 틈을 타 여우가 “큰 돌로 가방을 부숴 보자”고 제안한다. 외부의 힘에 의해 가방이 열리면서 상황이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내 뜻대로 하려고 애쓸 때는 되지 않던 일도 타인이나 외부의 개입으로 한순간 일이 풀릴 때가 있듯 책 속에서도 가방으로 물꼬를 튼 일이 이들 넷을 하

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된다.

결국 꼬마 동물의 여행 가방을 망가뜨린 동물들이 직접 만든 탁자와 나무 의자, 나무집을 만들어 주고 차를 함께 마시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가장 큰 환영과 친절을 베푼 셈이다. 긴 여행 중의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묵묵히 걸어온 꼬마 동물에게 후한 선물이 된다. 낯선 자의 손에 들린 가방이 모두를 아우르는 역할이 되기까지 경계에서 충돌로, 다시 이해에서 포용으로 합일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일상에서도 낯선 이를 마주하게 될 때, 단 1%의 경계나 의심 없이 온전한 환대가 가능할까. 외려 이 그림책은 인간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약함과 거짓됨, 편견과 선입견, 욕심과 아집을 숨기지 않고 표출해주는 이야기라 더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다가온다. 어색하지만 용기 있게 말을 건넸고, 몸을 누일 안식처와 공간을 손수 제공함으로써 마침내 지극한 환대를 표했다. 처음이기에 서로를 밀어내고 밀리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몸소 겪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 시간과 거리를 허락한 이후에 타인에게 기꺼이 건낼 수 있는 친절과 배려야말로 더 진정성 있고 도담게 가닿지 않을까. 🌿



친교와 공동선의 실현 장소, 교회 : 치프리아누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건강한 공동체는 인격들 사이의 친교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기꺼이 내어주고 ‘너’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나의 인격적 합일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친교의 본질입니다.

인격들 사이의 친교는 ‘공동선의 실현’으로 완성됩니다. 공동선은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상입니다. 공동선은 구성원 각자의 개별적 선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뿐더러, 공동체 전체의 선을 충만히 실현시켜줍니다. 그래서 공동선이 실현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인격들 사이의 친교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친교의 원천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위격적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이상을 삶으로 실현한 가장 대표적인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 이전의 가장 위대한 라틴 교부로 평가받는 치프리아누스(Cyprianus, 200/10경-258) 역시, “친교와 공동선의 장인 교회는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놓여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공동체상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그에 게 있어서 교회는 친교와 일치的神비이며, 평화와 사랑의 사슬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을 지향하고 실현하는 바탕이자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프리아누스가 주교로 서품되자마자 데키우스 박해(249-251)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많은 교우들은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배교자들(Lapsi)이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을 교회에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치프리아누스는 두 편의 사목서간인 『가톨릭 교회 일치』De ecclesiae catholicae unitate와 『배교자들』De lapsis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친교를 통해 교회가 다시 일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치프리아누스는 바로 그리스도교 최초의 사회교리 문헌인 『선행과 자선』De opere et elemosynis을 저술합니다. 이는 교회가 다시 친교로 일치되어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덕실천을 통해 공동선이 실현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궁핍하고 가난한 이에게 베푸는 것이든 당신에게 준 것이며, 궁핍하고 가난한 이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 것은 당신에 대한 폭력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이는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목상하며 행동하고, 고난과 궁핍에 빠진 동료들 생각하지 않는 이는 바로 그 사람 안에서 멸시당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했고,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없었으며,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사도 4,32 참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영적탄생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에 따라 아버지 하느님의 공정함을 닮는 길입니다. 『선행과 자선』 25. ✠



“위기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인생의 놀라움에 마음을 여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이 12월 18일 대림 제4주일이자 대림 시기 마지막 주일의 삼종기도를 통해 신변의 안전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밝혀질 미래에 마음을 열었던 요셉 성인의 모습을 묵상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림 제4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인 오늘 전례는 요셉 성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마태 1,18-24 참조). 요셉 성인은 혼인을 앞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미래에 대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 훌륭한 자녀, 아름다운 가정, 괜찮은 직업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소박하고 선한 사람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이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충격, 고통, 혼란, 심지어 분노와 실망감까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마리아를 고발하고 불륜 혐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심을 스스로 떠안으며 비밀리에 약혼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길, 곧 ‘자비의 길’을 택합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십니다. 하느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의 활동이며 태어날 아이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이르십니다(마태 1,20-21 참조). 요셉은 모든 이스라엘인의 가장 큰 꿈 - 메시

아의 아버지가 되는 꿈 - 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확실성, 완벽한 계획, 정당한 기대를 포기하고 모든 것이 밝혀질 미래에 마음을 열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영망으로 만들고, 당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예’ 하고 응답합니다. 요셉의 용기는 영웅적이며 침묵 속에 실현됩니다. 요셉은 신뢰하고, 받아들이며, 기꺼이 따를 자세를 갖추고, 더 이상의 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요셉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는 우리의 꿈과는 달리 종종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음을 닫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께 문을 열어두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위기를 꿈으로 바꾸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지평으로 위기를 열어젖히십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하느님의 지평입니다. 하느님의 지평은 놀라우며 우리의 지평보다 훨씬 더 넓고 아름답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움에 마음을 열고 살 수 있도록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빕니다.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12월 12일, 올해의 마지막 아세미(월요일, 19:30)를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봉헌하며 한해를 돌아보았습니다. 현 정권이 출범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20여 년 동안 한 뼘씩 호전되어오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 사회복지 정책들이 한순간에 과거로 회귀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 12월 아세미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자본 “론스타 사태”’를 주제로 외환은행 매각사건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경제책임자들과 외국자본의 유착관계도 짚어보았습니다.

정평위는 새해에도 아세미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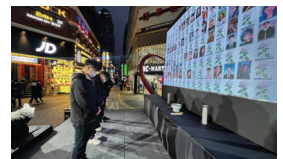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

12월 6일(화요일 14:00)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가 주교회의의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를 비롯하여 전국 15개 교구 정평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2022년도 사업보고와 2023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10.29이태원 참사 49일 부산시민추모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49일을 맞아,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전국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부산시민사회단체도 ‘10.29이태원 참사 49일 부산시민추모준비위원회’를 꾸리고 12월 16일(금요일, 19:00), 서면 주디스 태화 옆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유가족들의 구호에 응답하며 49일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300여 명의 부산시민들은 영상으로 소개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헌화, 유가족들의 이야기(영상)를 나누며 잊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또 10월 30일에는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에서 ‘성역없는 국정조사 실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2차 추모대회를 열었습니다.



+ 부산시의 대저대교 기존노선안 환경영향평가서 재접수 규탄 기자회견

낙동강하구 지키기 전국시민행동과 대저대교 최적노선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환경청이 거짓작성을 이유로 반려했던 ‘대저대교 기존안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산시가 재접수함에 따라, 12월 19일 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환경청, 시민행동과 함께 3자가 체결한 ‘대저대교 노선선정을 위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과 ‘대화를 통한 최적대안노선 도출’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부산시는 수천억 원 혈세가 투입되는 다리 건설사업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문화재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지키고 시민행동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 정의평화위원회는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서한에 근거하여 하느님 백성들이 오늘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깨닫고 가난한 나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제적인 사회정의를 권장하기 위한 교회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복음과 사회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 존엄성과 창조질서 보전, 생명존중과 정의·평화 구현을 위하여 힘씁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16일~12월 15일)

가야성당 강운자 강인순 강정웅신부 거제동성당 고은영 권성일(2) 권용대 권중희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광속 김귀애(2) 김선영 김인한신부 김종경 김진호신부 김해성당 김흥기 나경문 당감성당 덕신성당 류창훈신부 류형숙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맹정은 모라성요한성당 박위옥 박종민신부 반송성당 배미희 법무법인 민심 법무법인부산 병영성당 서경혜 서면성당 손석호 송석희 신정금 심서경(2) 심재영 아리 언양성야고보성당 우무섭 월평성당 유상우신부 유한이 윤영훈 윤용웅 이기대성당 이미영 이봉룡 이영복 이우형 이윤호 이성애 이소라 이정기 이형규신부 임호성당 장원창 전나미 전동묵신부 전윤희 전태일 정성호신부 정종태 정호신부 정희동 조계환 조동기 조동성신부 조영심 주교좌중앙성당 주님의축복을 주례성당 차광준신부 초장성당 최우인 최은경 최재경 최혁신부(2) 최현욱신부 하단성당 하민진 하희설 해운대성당 하채현 황수업 황진 익명

| 원고 후원 | 고은영 김아영 김현신부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수녀회 한상엽신부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소중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 정의평화위원회에 후원인 가운데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이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십시오. ☎051-465-9508

2023년 1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지금, 우리 언론의 자리

10.29 이태원 참사 보도를 중심으로

©시사IN 이명익

01
60

2023년 1월 9일(월) 저녁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강유정 교수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1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s.co.kr